

# 재보선·라스·北 피격 도마 위...靑 국감 시작부터 고성

(리임·오티머스)

### 국민의힘 "민주당, 내년 서울·부산시장 후보 내는 것 맞나" 항의 노영민 실장 "라스 자료 적극 제출...국민 피격 사건 규명에 최선을"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리임·오티머스 수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경재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민주당을 감사하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에 대해 질문하냐"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태연 위원장은 "질 의중에는 방해행위를 삼가라. 피격기관이 답할 것이다"라며 여당을 제지했다.

고성이 찾아들자 김 의원은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것은 박원순·오거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다.

노 실장은 "여야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고, 김경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장자연 사건(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일관반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묵을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선택적 침묵이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냐. 대통령을 욕보이고 받

언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맞는 얘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의 리임·오티머스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대통령 지시대로 청와대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를 받고 "검찰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 자료 제출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

'리임 사태' 연루자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것과 관련, 청와대 출입 기록도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튼 검찰에서 협조를 요청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노 비서실장은 4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참여단에 우리 대표가 합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국제적인 신뢰를 얻기 위해 IAEA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며 밝혔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투명한 정보 공개, 국제사회의 협의, 충분한 소통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일본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며 "청와대 내에도 태스크포스(TF)가 있어서



노영민(맨 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회의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서해 수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은 발생해서는 안될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

라며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안보상황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이 어렵다"며 "2018년부터 서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그때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9일 공수처장 1차 후보 추천

### 13일부터 심의...이광범 변호사·김진국 감사위원 등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초대 공수처장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열어 추천위원별로 5명 이내의 후보를 당사자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추천위원회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후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중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현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경력 등 까다로운 조건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추천위원들은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정년은 65세다. 정년을 넘긴 사람이나 금과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또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

해 현역 검사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은 후보군에 오르지 못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61·13기) 변호사, 이정미(58·16기) 변호사, 김진국(57·19기) 감사위원, 이용규(56·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 조현욱(54·19기) 전 여성변호사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결격사유가 없어 공수처장 후보 자격이 있지만, 일부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며, 2012년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김진국 감사위원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변호사는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달 중 공수처장 인선을 마무리 짓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지만,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공수처장 인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직무 수행 최선"

### 예결위 출석...거취 관련 입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편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최대한 성

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쪽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야당이) 정치소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어제 부총리가 정말 이례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만두는 장관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직자로서 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취를 말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야권연대' 김종인 선 긋고 주호영은 리브콜

### "야권에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시민후보에 가까운 당 후보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야권이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이 범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말에는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이른바 '시민후보'를 세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경선 규칙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시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규칙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시민참여

비율 100%로 하는 '국민경선'으로 치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 당원을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 당원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규칙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민후보론'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후보 결정 과정에서 책임당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책임당원 비중이 높아지면 서울시민의 선호도와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후보에 가까운 당 후보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3 '도서 비평'으로 돌아온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는 6일 재단 유튜브 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3'(알릴레오 북's)을 시작한다고 노무현재단이 4일 밝혔다.

앞서 시즌1, 2에서는 사회 현안과 쟁점을 짚었다면, 시즌3에서는 교양 안내서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방송되며, 조수진 변호사의 사회 아래 선정된 책에 걸맞은 전문가가 나와 유 이사장과 독서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회에서는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 권력을 주제로 토론한다. /연합뉴스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Him e Bnong Solar Energy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